

삼성석유화학 부사장 공영건 승진

삼성, 부사장 25명 등 임원 363명 승진 ... 삼성종합화학 전무 박오규

삼성은 2003년 1월17일 이재용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키고 25명을 부사장으로 올리는 등 역대 최대인 총 363명의 임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석유화학 부사장에는 공영건 씨, 삼성종합화학 전무에는 박오규 씨 등이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이 25명, 전무 승진이 26명, 상무 승진이 121명이며 상무보는 2002년보다 49명이 늘어난 191명이 승진했다.

삼성의 임원승진은 2003년 사상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둔데 따른 인사보상의 성격이 짙으며 앞으로 실적중심 인사와 경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사장 승진자가 2002년 13명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은 앞으로 삼성의 경영을 이끌어갈 CEO 후보군을 두텁게 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부사장 승진자의 25명에 해당하는 16명이 기술직(11명), 영업직(5명)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또 승진자 중 일반적인 인사기준에 비해 조기에 승진한 이른바 발탁 대상자도 총 76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임원 승진자의 평균 연령은 45.9세로 낮아져 역대 최연소를 기록했으며 전체 임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사 전의 59%에서 67%로 대폭 높아져 40대가 임원의 주력세대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현정 씨 등 3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신규 발령하고 기존 여성 임원 6명 중 3명을 승진 시켰으며, 외국인으로는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 휴대폰 판매 책임자인 피터 스카르진스키(47)씨가 유일하게 임원 승진자로 기록됐다.

승진자 중 석·박사는 35%인 126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임원 중 석·박사의 비율은 사상최초로 30% 선을 넘어섰다.

삼성그룹 화학부문 승진자 명단

구 분	부사장	전 무	상 무	상무보	상무급	상무보급	상무보대우
삼성SDI	박근희		김덕연 김하철 변창련 이진건 조영철	남호일 박종호 신일용 윤여창 이영호 정종인 천정철		김광일 장동식	
삼성코닝		이병래	이현용 한영부	이문철 정대홍 최경화			
삼성코닝정밀유리			김남철	이지성			
삼성종합화학		박오규	김태한	이동호 이 원 임종태 조인성			
삼성석유화학	공영건		박성훈 윤영규	안병진			
삼성BP화학				고경수			
제일모직			김인수 송문영 원종운	김영보 이흥수 차동운	구정기 윤영수	박현길	이정민
삼성엔지니어링		정형근	최봉렬	남성우 백재봉 최기동			이진형

< Chemical Daily News 2003/ 01/ 20 >